Today Chart Bond

2026. 1. 29

채권 우혜영
whydele@ls-sec.co.kr

미국 연방 정부 부분적 셧다운 불가피한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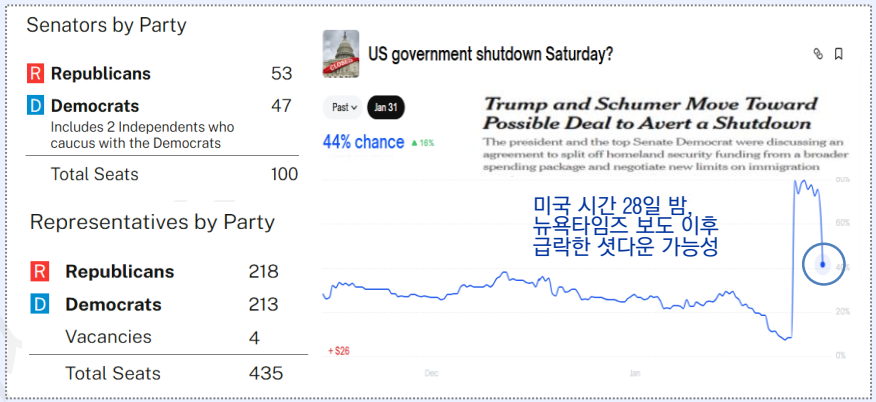
구분	하원 통과 (찬성 : 반대)	상원 통과 (찬성 : 반대)	대통령 서명
Homeland Security(연간 세출 법안)	2026.1.22 (220:207)	-	-
Defense / Labor, Health and Human Services, Education/ Transportation,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(연간 세출 법안)	2026.1.22 (341:88)	-	-
Financial Services and General Government /State, Foreign Operations (연간 세출 법안)	2026.1.14 (341:79)	-	-
Commerce, Justice, Science / Energy and Water Development / Interior and Environment(연간 세출 법안)	2026.1.9 (397:28)	2026.1.15 (82:15)	2026.1.23
CR(~1/30)과 Agriculture, Rural Development,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/ Military Construction and Veterans Affairs /Legislative Branch (연간 세출 법안)	2025.11.12 (222:209)	2025.11.10 (60:40)	2025.11.12

- 작년 11월 12일, 일부 부처(①농무부·식품의약국, ②입법부, ③군사 시설 건설·재향 군인부)의 연간 세출 법안과 단기 임시 예산안(CR, ~1/30) 통과됨
- 올해 1월 23일에도 일부 부처(④상무부·법무부·NASA·국립과학재단, ⑤에너지부·수자원 관리 및 발전 관련 부서, ⑥내무부·환경보호청·산림청) 연간 세출 법안도 통과됨

→ 추가로 6개 부처에 대한 세출 법안 필요. 하원은 6개(⑦국방부, ⑧노동부·보건복지부·교육부, ⑨교통부·주택도시개발부/⑩재무부·중소기업청·연방통신위원회, ⑪국무부·국제개발처 / ⑫국토안보부) 법안을 소규모 패키지 형태로 상원으로 넘긴 상황

자료: 언론보도종합, Polymarket, LS증권 리서치센터

미국 상하원 의석수 : 세출 법안 패키지 상원 통과 위해 60표 필요



Key Point

- 셧다운 피하려면 1/30일 자정까지 하원에서 넘긴 세출 법안 패키지가 상원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 서명 필요. 만약 법안 수정 시 하원 통과 필요
  - 상원에서 예산안 분리 처리 등 자체 수정안 또는 CR 법안 별도 발의할 경우 상원 합의 시 하원 재소집 후 해당 법안 통과시킨 다음 대통령 서명 필요
-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거의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들, 국토안보부 예산 삭감하지 않으면 세출 법안 패키지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. 세출 법안 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 예산 분리 처리 요구
- 프리덤 코커스(하원 내 공화당 강경파 모임)는 민주당이 약속을 어길 시 정부에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세출 법안 패키지 수정 의사 없다는 입장 표명
- 28일,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정부 셧다운 여부는 백악관과 민주당 간 협상에 달려있다고 언급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우혜영).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_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_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_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_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LS증권